



# 빠른길 안내에 숙소 예약까지 척척 휴가철 스마트폰 하나면 "OK"



은 국민이 여행가방을 싸는 휴가철이다. 여행가기 전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여행객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여기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다양한 여행 정보는 물론 시간과 돈까지 절약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 현황 분석에 숙소 예약도 = 휴가길에 제일 짜증나는 일은 교통 체증이다.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는 정확한 교통 정보는 필수다.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T맵'은 안드로이드폰 프로그램으로 출시돼 있다. 전국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시내까지 실시간 교통 현황을 분석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정보'는 전국 40개 고속도로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 텍스트 위주로 정보가 제공돼 무선인터넷 요금 부담이 적고, 주요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주행속도를 색상과 숫자로 표시해줘 보기에도 편하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인터넷 오즈 라이트(OZ-Lite)를 통해 전국 주요 도로의 실시간

상황을 5분 간격으로 알려주는 '교통상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제휴해 서울을 비롯한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국도의 교통정보를 고해상의 지도로 보여준다. '오즈 & 내비'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준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휴대폰을 통해 길 안내뿐 아니라 주유 정보, 맛집, 여행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날씨 또한 중요하다. 아이폰에서 '케이웨더'를 내려받으면 자세한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택한 지역의 새벽, 아침, 낮, 저녁 날씨 예보가 제공되며 기상캐스터가 진행하는 날씨 동영상도 나온다. 숙소를 예약하지 못한 채 떠났을 경우엔 아이폰 앱 'FindRoom'으로 현지의 민박, 여관, 펜션, 호텔 등을 찾으면 된다. 캠핑장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있다. 아이폰 앱 '캠핑인'은 전국 캠핑장 400여곳의 시설현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가 캠핑장을 다녀온 뒤 그곳을 평가하는 별점을 달 수도 있다.

◇스위스 여행 정보를 한눈에...국내 여행지 증강현실도 = 스위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는 휴대전화 안에 가이드 북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포켓 스위스(Pocket Swiss)'와 '스위스 하이크(Swiss Hike)'를 선보였다.

'포켓 스위스'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미리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산악 지대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취리히, 제네바, 루체른, 바젤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14개 스위스 주요 도시에 대해 관광지 오디오 안내, 지도 보기, 추천 루트

등을 소개하는데, 관광지 안내와 지도가 곧바로 연동돼 편리하다. 현재 SKT통신사의 단말기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보는 무료이다.

'스위스 하이크(Swiss Hike)'는 아이폰 앱으로 서비스되며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스위스의 날씨, 이벤트, 철도 상황 역시 앱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SK텔레콤과 스마트폰 기반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 투어(Smart Tour)' 서비스를 실시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경복궁을 비추면 경복궁의 역사와 상세 설명, 관련 사진, 입장료 및 관람시간 정보 등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스마트 투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T-store(www.tstore.co.kr) 여행 카테고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무선인터넷 자유롭게 = SK텔레콤은 강릉 경포대, 동해 망상, 양양 낙산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개방형 'T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고 있다. 전국 18곳의 해수욕장에서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T와이파이 존에선 이동통신사, 단말기 종류, 요금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도 주요 해수욕장 32곳에 '룩앤쇼츠 비치(beach)'를 구축했다. 룩앤쇼츠 비치를 이용하려면 KT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룩와이파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통합전산센터 '인턴사원제' 실시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이우철)가 지역 IT업체에 입찰 우선권 부여는 물론 인턴사원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사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전산센터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참여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용역, 계약 등 입찰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내 시설운영 및 전산관리 직원 365명 중 73%인 270여명이 지역에서 채용됐으며 7월부터는 지역 IT기업과 연계, 센터 내에서 인턴 근무 후 해당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우철 센터장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대학 19명의 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KT '올레 와이파이 존' 앱으로 찾는다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주는 아이폰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KT는 전국 2만7000곳이 넘는 '올레 와이파이 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애플 앱스토어에 무료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olleh Wi-Fi Zone 찾기'라는 명칭의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위치에서 반경 0.5~3km 내에 있는 올레 와이파이존을 검색한 뒤 찾아가기, 상세정보, 전화결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모드로 전래한 현재 위치를 카메라로 비추면 주변의 올레 와이파이존, 룩쇼매장 등이 화면에 나타난다.

## SKT 앱 시리즈 '올댓 라이프 100' 출시

SK텔레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용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한데 모은 앱 시리즈 '올댓 라이프 100 (All that life 100)'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장터인 'T 스토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댓라이프100'은 자동차와 여행, 오락, 요리, 피부미용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인터넷상의 파워블로거 및 전문가들의 유용한 글들을 한데 모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10여개의 앱이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 시승기부터 연비절약 운전법을 설명하는 '올댓 캔드라이빙',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올댓 매일반찬'이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앱은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는데 있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시속 1600km 자동차 모델 공개

항공기 엔진을 장착해 시속 160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인 '블러드하운드 SSC'의 모델이 드디어 공개됐다고 BBC 방송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이날 개막한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는 블러드하운드 SSC와 외양이 똑같은 12.8m 길이의 모델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란색과 오렌지색에 폴리스티렌과 섬유 유리로 만들어진 이 모델은 무게가 950kg으로 블러드하운드 SSC 예상 무게인 6t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 디자인만으로도 공기역학의 발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모나리자 '명암법' 비밀 풀려 佛 과학자들 '얇은 막 30겹까지 입혀'

프랑스 과학자들이 '모나리자' 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연구해 작품에 신비감을 주는 '스푸마토'로 불리는 명암법의 비밀을 규명했다.

프랑스박물관연구국본원센터의 전문가들은 다빈치가 작품에 미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 극도로 얇은 막을 최대 30겹까지 입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에 참가한 필립 윌터는 이 막은 머리카락 두께의 약 절반 가량인 40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밝혔다.

스푸마토 기법은 그림의 윤곽에 안개와 같은 흐릿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깊이감과 그림자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기법으로, 이 기법에 의해 중세의 평평한 그림들에서 벗어나 사진과 같은 현실감이 있는 그림들이 등장하게 됐다. /연합뉴스

## 소행성 2만5000개 추가 발견 95%가 지구에서 4800만km 이내 위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6개월간 첨단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전역에서 소행성 2만5000여개를 새로 찾아냈다.

NASA는 최근 지난해 말 발표한 광역적외선탐사망원경(WISE)으로 우주 전역을 훑는 작업(스캔)을 끝내고 2차 스캔에 들어갔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소행성들은 95%가 지구로부터 4800만km 이내에 있어 천문학상으로는 '지구 근접(Near Earth)' 천체로 분류되지만, 당장 지구에 위협을 줄 만한 천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NASA는 소행성 외에도 해성 15개와 갈색왜성 20개, 지구에서 100억광년 이상 거리에 있는 '초발광은하' 추정 천체도 새로 발견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가 개발한 WISE는 지구 상공 약 480km 궤도를 돌며 11초마다 한 장씩 적외선 사진을 촬영한다. /연합뉴스